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1994년도 표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홍해작전 22일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제로
올해도 6월 6일에 개전 14일간 진군

우리 교회는 매년 6월 6일을 기하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인 「홍해작전」을 시행해 왔다. 올해도 14일간 계속될 '94 홍해작전은 이영세 장로를 참모장으로 조직을 새롭게 하고 역사적 진군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새 예배당 입당 후 첫번째 맞는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9)로 정했다.

홍해작전은 기도작전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 앞에서 당한 위기상황에서 세상의 어떤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모든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신앙적 의지의 표현으로 「홍해작전」이라 이름한 것이다.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직면한 갖가지 위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로 해결하시는 홍해작전을 기도로 준비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의 홍해를 기도로 뚫고 기도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복음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제5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기간동안 계속

홍해작전 개전에 앞서 제 5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가 진행되는 5월 25일(수)부터 6월 3일(금)까지의 새벽기도회는 김치 신학세미나의 은혜로운 진행과 러시아 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으로 정하였다.

김치 신학 세미나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타 문화권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도케 하고 특별히 새벽기도회의 유익을 체험케 함으로써 새벽기도 운동을 전세계에 확산시켜 교회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온 교회는 기도로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복음화의 주역이 될 목회자의 갱신을 통해 복음확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과 한국 교회 내에 선교비전을 확산시키고 국가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선교전략을 배우려하는 이 세미나의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도록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복음 만민이 듣도록’ 본격적인 전도활동 시작을 위한
제1기 70인전도단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에

지난 2월 27일 결단식을 갖고 출발한 제1기 70인 전도단이 10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에 수료식을 갖는다. 전도의 방법과 전략, 전도자의 자세, 복음 제시, 반대이견 다루기 등 전도를 위한 실제적인 강의와 워십, 초청강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전도훈련을 받은 단원들은 수료 후에도 축조전도팀, 병원전도팀, 터미널 전도팀을 구성하여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도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전도팀별 활동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70인 전도단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전도팀명	요일 및 시간
축조전도팀	주 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병원전도팀	주 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터미널전도팀	주 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감사와 질서 위원회 해산』

- 실행위원회는 별관 입당까지 존속키로 -

당회는 새 예배당 입당을 위해 결성하였던 「감사와 질서위원회」를 해산키로 했다. 치밀한 계획과 일사불란한 행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시설과 이전을 무사히 치른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위원회는 해체하지만 실행위원회는 그대로 두어 새 예배당의 시설 보완과 별관 입당까지의 실무적인 일들을 총괄 집행하도록 하였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자 안이숙 여사 초청 간증집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6(월), 17(화) 양일간 오후 7시

권사회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새로운 헌신에의 결단과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16일(월), 17일(화) 양일간 오후 7시에 안이숙 여사를 초청하여 간증집회를 갖기로 했다.

1968년 간증집 「죽으면 죽으리라」를 출간하여 잘 알려진 안이숙 여사는 일제 말엽 신사 참배 강요 탄압에 꺾기 투쟁한 역사의 산 증인으로 6년간 옥고를 치르다 사형집행 몇 시간 전 광복을 맞아 그해 8월 17일에 출옥한 믿음의 산 증인이다.



어버이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소망부에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과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방문하였다. 어른들께는 즐거움과 흐뭇함이 넘치는 하루였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는 높일 자를 높이면서 인륜관계에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새로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다.

창세기 강해

세상 정부의 시작

(창세기 9장 1 ~ 7절)



이 중 운 (목사·당회장)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 죄와 형벌의 시작 노동의 시작 등을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정부, 나라의 출발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1. 교회와 국가의 영역 자주권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거나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둘 다 비성경적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둘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각각 영역 자주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정치도 하고 국가의 여러가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가 나서서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교회에 대해 부당한 통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정교분리라 부르며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준수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와 정부는 둘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역입니다.

2. 진정한 애국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국가의 구성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신비로운 실체로 생각해서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와 같이 여기고 '애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애국이란 내 형제와 이웃과 백성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골육 친척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대개 독재자나 혹은 잘못된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를 사랑해야한다는 명분 하에 독재자가 자기 목적을 세우기 위해 잘못된 국가관을 국민에게 심고 잘못된 충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국심은 민족우월주의나 국가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의 출발에 대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9:1)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국가나 다른 기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

워하여 너희를 무서워 하리니"(9:2)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들은 너희 손에 붙어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 질서를 위한 새로운 시도

질서를 위해 주신 첫번째 계약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무지개 계약이었고, 두번째 주신 언약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곤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거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9:5, 6)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해한 자에게는 벌을 칠배나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로다"(창4:24)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남을 해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살해 행위 이후에 인간의 잔인하고도 포악한 행위는 계속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으시려한 하나님의 시도가 창세기 9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권세(power), 즉 지식의 힘, 육신의 힘 등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심지어 처마 밑의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곤충을 잡아 먹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정부의 정치자도 하나님께서 권위와 힘을 부여하신 것이므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할 책임을 짊어진 그들에 대해 우리는 복종하고 기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근원적인 요소는 '힘'입니다. 힘 없는 정부는 제 구실을 할 수 없으며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한다든지 오용하면 그 나라는 질서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으니 정부의 힘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

용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 정부는 도덕성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정부나 국가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을 강조하던 예전의 국가 관과는 달리 현대의 국가에 대한 개념은 '공동이익 집단'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익집단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도덕을 지켜갈 뿐이지 도덕을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향하여 영적인 부분을 선포하고 교정하고 격려할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전한 정부가 되려면 건전한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도덕성을 만들거나 그 수준을 높일 수 없으니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의해 마땅히 도덕성의 기초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할 줄 알아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당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셔야하고 기도로 고쳐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못 고칩니다.

국가의 힘은 큰 것이지만 하나님 떠난 국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나라의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 정부가 바로 서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절제하는 삶

신천신지에 대한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은 청교도의 후예답지 않게 19세기 말엽의 미국 사회는 벼락 부자들이 군웅할거하는 사회였다. 당시 미국 사회는 절제가 결핍된 사회였으며 갑자기 황금을 손에 쥔 이들이 물질적 성공을 남에게 과시하던 시대였다. 그들은 르네상스식 저택을 짓고 궁전같은 건물 속에서 부를 과시하기 위한 호화 파티를 연달아 열었으며 사치스런 수입품 가구와 골동품들로 그들의 높은 담벽 안을 가득히 채웠다. 그들의 이같은 과시적 소비풍조와 호사심리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와 유럽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다. 결국 낭비란 자신이 지니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작용인가.

보리밭도 못먹던 시절에 대한 한풀이식 과시풍조와 열간이 부자들의 낭비바람에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시달림을 받아야 하나.

이것들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자.

순례자캠페인 2

“도바로 빠칼로 바찌!” (러시아로 “환영합니다”라는 뜻)

제 5차 김치세미나가
오는 25일에 시작한다.
「순례자」는
김치세미나의 진정한 목적을
잘 이루고
러시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
몇 주간에 걸쳐
다음의 글을 연재하려고 한다.

1. 김치세미나의 열매

2. 러시아 정황

3. 제5차 김치세미나 기도제목

4. 제 5차 김치세미나 현장스케치

오늘은 그 두번째로
러시아의 지리, 경제, 문화적인
배경과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 글은 1992년 11월에 간행된
김상복 목사 편저
<구소련 선교 핸드북>을
참고 하였다.

러시아 개관 -

1. **면적** - 22, 402, 200km²로 세계 최대이다. 한반도의 101배, 미국의 2.4배로 지구 육지 면적의 약 1/6을 차지하며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가 11,000km로 무려 11시간의 시차가 있다.

2. **인구** - 약 3억정도이며 이 중 러시아인이 53%, 우크라이나인이 16%, 우즈베크인이 5%를 차지한다.

3. **수도** - 모스크바(Moscow)로 인구 900만이 거주한다.

4. **언어** -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전체의 56%가 사용하나 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용되는 언어가 약 250종에 달한다고 한다.

5. **경제** -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세계 최강의 자원보유국으로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천연 자원의 보유고와 생산고는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오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체질화된 노동의욕 퇴보와 낮은 생산성 때문에 개발과 활용이 안되고 있다. 농업은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에서 행해지며 독립국가연합의 탄생 이후 갑작스런 경제정책의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다. 가격 자유화 정책으로 가격 인상과 물자부족 현상, 대외 교역 감소 등으로 러시아 경제는 다소 암울한 상태에 있으나 기름지고 광활한 땅에 자원이나 인력의 풍부함, 문화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 경제에는 많은 잠재력이 내재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6. **종교 현황** - 러시아 내의 주요 종교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1992년 11월 현재, 추정)

종교	신도수	비 고
러시아정교	5,000만명	소련 최대의 종교
카톨릭	400만명	발틱연안 및 우크라이나 공화국 중심
신교	300만명	침례교, 루터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파
회교	2,800만명	소련 제2의 종교
불교	25만명	시베리아 동부 지역
유대교	300만명	모스크바 등 대도시와 러시아 공화국 내의 유대자치 구역

선교현황 및 전략 -

1. **선교의 역사** - 러시아에 기독교가 최초로 들어간 것은 988년이다. 오랫동안 기독교 교권이 정권과 야합함으로 부패일로에 있다가 1917년 10월 혁명, 즉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주의가 들어감으로 교회는 없어지게 되었고 개방되기까지 70여 년 동안 탄압을 피해 지하로 잠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었고 우리나라와는 1989년 9월 30일에 국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90년 10월부터는 개정된 종교법에 근거하여 독립국가연합의 선교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의 문호가 개방되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다.

2. **선교의 문제점**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 및 선교단체들이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오랫동안 문이 열린 러시아는 복음에 있어서 옥도와 같으나 미숙한 선교전략과 성급한 판단으로 혼란과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생필품이 절대 부족한 현지인들에게 복음 증거의 수단인 물품 공급이 교회간에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다든지, 갈급해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이단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질적인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교회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언어의 장벽으로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3. **바람직한 선교전략** - 책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해 주는 일이나 찬양과 의료 사역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효과적인 사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성격, 풍습, 습관, 전통, 언어 등 러시아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선교사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재교육시키고 영적인 각성과 자국복음화를 위해 전략을 수립케 하는 이번 김치세미나는 러시아복음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워야

신세대 - 소신껏 생활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개발에 가치 기준을 두며,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적인 특성을 지녔고, 감성중심의 생활로 획일적인 가치관의 부재. 매스컴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대략 위와 같은 외적인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요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신세대, X세대라 일컫는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세대임을 자부하고 또 그런 삶을 지향하려 한다. 이는 사춘기적 특성과 맞물려 교육주의를 거부하는 소비중심적이고 즉흥적인 풍토에 청소년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일상의 생활원리로 삼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정신적 지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동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새벽기도회 전후나 금요기도회 등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거리를 배회하며 어른 흉내를 내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도 복음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설득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조용한 모임이 있다. 유흥가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식당(☎ 514 - 2356, 547 - 3761)에는 자정 넘어서부터 그들을 대접하는 손길들로 분주하다.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마치는 10시 30분부터 영동 일대 유흥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일에는 찬양예배가 끝난 후 청량리 유흥가로 복음을 들고 나간다. 또한 화요일에는 영동포 방향으로 사역을 나간다.

이 일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차량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운전하실 분이 없어 운행

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도 요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도 지금보다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윤락가를 떨치고 나왔으나 생계의 수단을 아직 찾지 못한 이들에 대한 후원,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은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만으로는 베풀기만 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모, 자녀,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 가정의 행복과 사랑, 책임 등에 대해 재고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노인, 결혼 가정, 소년 소녀 가정, 직업 여성과 방황하는 청소년 등 핵가족의 핵심 성원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사회성원은 관심의 초점에서도 벗어나 여전히 소외의 현실에 남겨져 있기 십상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실천 가능한 일들을 찾아 손을 뻗어보자.

각 부서 소식

광야의 소리

현대적(?) 신앙인

에 고이스트라는 단어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어 서인지 요즈음엔 에고이스트가 아니면 조금 뒤떨어진 감을 준다. 이러한 풍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 물불 안가리고 봉사하던 사람들도 문제에 부딪히면 결국 그 초점을 예수님 아닌 '나'에게로 맞추곤 하는데 이것이 결국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다.

바른 신앙생활은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는 성령충만한 사람이 불쌍한 형제에게 도무지 눈을 돌릴 줄 모름은 어쩔인가.

우리는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할 것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기적이고도 메마른 심령일 것이다.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신가.

모세선교회 - 우리 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약 40분 모이시는 선교회. 매주 열리고 있는 목회자세미나에 교재며 교회 유인물들을 차질없이 배부하시려고 안 보이는 곳에서 애들을 쓰신다. 특별히 지난 달에는 반포 파출소를 찾아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셨다.

탁아부 - 어린 아기를 둔 부모님들이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곳. 매 주일 I, II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아빠 엄마를 잠시 떨어진 아가들도 찬송과 기도를 배우며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이번 19일(목) 12시에는 학부모 초청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예배와 작업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는 탁아부의 교육 내용을 알려주고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갓난 아이부터 맡겨지기 때문에 이들을 돌볼 교사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며, 아기 침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집에 자리만 차지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기 침대, 탁아부에 가져오시면 유용합니다!

찬양위원회 -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곳. 강단 옆에 특별히 마련된 찬양대석에는 아직도 더 많은 성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

찬양대	담당예배	연습시간		
		예배 전	예배 후	평일
가브리엘	주일I예배	07:50 ~ 08:45	11:00 ~ 12:00	토요일
할렐루야	주일II예배	09:30 ~ 10:45	13:30 ~ 15:00	토요일
임마누엘	주일III예배	12:30 ~ 13:45	15:30 ~ 16:30	토요일
베들레헴	찬양예배	15:30 ~ 16:45	18:30 ~ 19:00	
호산나	수요I예배	10:00 ~ 10:45	12:30 ~ 13:45	
시온	수요II예배	18:00 ~ 18:45	20:45 ~ 21:30	

차량관리부 - 예배나 집회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발바닥이 부르드도록 고생하시는 부서. 주차 질서를 지키시지 않는 분들, 무례한 언행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몇몇 분들로 인해 당황하곤 하는 부서다. 예배당 이전 이후 더 많아진 업무와 부족해진 일손. 때문에 함께 수고할 차량관리부원이 많이 필요하다. 차량관리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각자가 주차 질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도 차량관리부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길이다.

사랑부 - 몸이 불편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곳. 학생들을 한사람씩 데려오고 집까지도 다시 데려다주어야 하기에 차량과 돕는 손길이 항상 모자란다. 얼마 전에는 50대이신 선생님이 학생을 승차시키시다가 허리를 다쳐 한달동안이나 회사를 못나가시고 계셔서 모두들 안타깝게 기도하며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침을 주고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길 기다리고 있다.

은혜의 김밥말이부대

봉사전장

권영옥(권사·8교구)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하여 매주 월요일 새벽 아침이면 한 번이라도 빠질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달려 나오는 김밥말이 봉사원들.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하고 서로 손발이 잘 맞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기계적으로 신속하면서도 질서있는 솜씨들이다. 손 끝으로는 밥을 말면서 입술에는 기쁨 넘치는 찬송으로 온 식당에 은혜가 충만하다.

먼저 앞장서서 주관하시는 권사님과 여러가지 재료를 구입해 들이는 권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가장 힘든 일을 묵묵히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매주 우리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봉사원들이 이 땅위에 사는 동안 쇠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5월 23일 목회자세미나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설교구상과 실제」 - 김소영 목사

교우동정

- 신용식 성도는 12일(목) 충북 영동에 (주) 세현의 라펠로스 에이스 공장을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송석인 · 손순애 집사는 14일(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4층에 한식점 「만나」를 열고 개업예배를 드렸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1 제5차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를 은혜 중에 준비하게 하소서
2.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목회자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갱신이 있게 하소서
3. 그리스도인답게 정직과 절제의 삶을 잘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소서
4. '94 홍해작전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홍해를 건너게 하소서.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